걱정스런 인생역전

(요16:1~8)

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걱정스런 인생역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역전! 말만 들어도 통쾌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신이 납니다.
이 역전이라는 것처럼, 처음부터 우세한 고지를 점해서 끝까지 그러한 형국이 바뀌지 않고, 쭉쭉 뻗어나가게 되는 것, 이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탄합니다.
그러나 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좌절의 벼랑 앞에 서있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약세나 열세에 있다가, 중간에 뜻하지 않게 형국이 뒤집혀져 역전의 형국으로 바뀔 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축구시합 야구시합 하고 이럴 때도, 지다가 이기는 이게 진짜로 사람 돌

아버리게 할 정도로 기쁜 일 아닙니까?
이게 역전의 맛입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역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역전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뭔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왜 인생역전이 주님을 믿게 되어서 일어나는 것일 경우에 걱정스럽고 꺼려지게 되느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애들이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맨 대중가요 이런 거 부르면서 춤추고 이러던데,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동네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내가 지거든요? 그러면 달리다 말고 숨이 꼴딱 차서 딱 서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큰 소리로 나보다 앞서 달려가고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그 동무들에게 '앞서 가는 사람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순~경'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마음이 순진하고 여린, 달리기를 잘하던 앞서 가던 동무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 멈춰 서버리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앞서 가는 사람은 도둑놈이고 뒤에 쫓아가는 사람은 순경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계속 더 달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쫓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뒤쳐져 있다가, 막~ 달려 가지고 1등 하는 그런 역전이 아니라, 이 역전은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역전입니다.
달리기에 지겠으니까, 앞서 가는 사람을 도둑놈으로 만들어 버리고, 달리기 실력이 없어서 뒤쳐졌으면서, 그래서 뒤쳐진 자기의 상황을 순경으로 만들어 이상하게 형국을 역전 시켜버리므로, 사람이 달리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이거 계속 달려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참 묘한 역전이고,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한 역전이고, 치사한 역전인데 역전은 역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슷한 역전이 나옵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전의 역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딱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순경'이라는 노래를 불러 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듯한 그런 역전이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봤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부자입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엘리트에요.
젊은 사람이면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리에 서고 부자이기가 쉽습니까?
부자 아무나 됩니까? 부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참 수고했다. 부자가 되느라고 수고 했는데, 이제부터 그 수고하면서 번, 네가 정말 근면하고 능력이 있어서 벌게 된 그 모든 돈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살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 그러시냐 하면 '부자가 하나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십니다.
아~ 이거 완전히,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순경!' 아닙니까?
돈 버는 경쟁에서 1등 했습니다, 벼슬 얻는 경쟁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그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말해 버리는 것과 똑같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도 못 벌고, 벼슬도 못 얻고, 높아지지도 못한, 엘리트도 되지 못한 제자들이 갑자기 높아져 버렸습니다.
인생역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꺼려지는 인생역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6절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상태를 읽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도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하시며 제자들을 나무라는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나무람을 받을 처지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어린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아예 기정사실화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유월절 잔치에요, 유월절 잔치이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명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가볍고 기뻐요? 우리 추석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쁜 유월절 시작 즈음에 더군다나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공표를 하시고, 유월절 잔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이 16장에서는 당신이 죽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뭐라 그러시냐 하면, 당신이 죽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출교라는 게 뭐에요, 여러분?
출교시킨다는 것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출교에서 더 나아가 죽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난다는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냉큼, 어디로 가세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근심이 차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공표하시는 예루살렘 입성의 대관식을 열었으면, 이제 좀 진취적이고 정복자다운 기미가 좀 새어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복자다운 기상이 뻗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제자들은 출교당할 거고, 그 사회에서 매장 당하고 쫓겨날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출교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인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떠나야,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젠 좀 살 희망이 생겼나? 생각해 봅니다.
아닙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뭐하시냐?
출교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바람처럼 돌아다니시면서 성령께서 벼락을 내리시고, 그들의 집안이 망하게 하신다든지 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도 여전히, 출교의 일이 일어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 게 된다 이겁니다.

단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책망하는 일만 하신다는 겁니다.
책망하는 내용은 내일 우리가 볼 것이에요, 구체적인 책망의 내용은.
그러나 책망하신다는 그 사실만을 약속으로 주시고, 출교당할 거고 죽임당할 것을 기정사실화 해 버리십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구약에서는 선민들이 하나님께 제재를 받을 때는, 그들이 잘못 했을 때, 이방민족들을 몽둥이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돌아오라고.
근데 제자들은, 앞으로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 때가 되면, 오순절 역사 이후가 될 것이고,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믿고 있는 제자들이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걸 기정사실화 하고, 그리고 약속해 주신 것은 '그러한 세상을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출교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출교하는 세상을 정복하고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피지배층에 있던 제자들이 지배층으로 바뀌는 대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책망한다는 애기는 무슨 애기냐 하면,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고 있는 그 세상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제자들을 출교 시키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떼끼 이 세상아 너 잘못 된 거야'라고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차이가 많은 형 때문에, 두 살 박이 세 살 박이 동생이 울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형 때문에 울었어? 아유~ 형이 나쁘네, 형 떼찌, 형 떼찌!' 그렇게 형을 책망 해주는 엄마처럼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해 주신다 이겁니다.
아~이 건 뭐 도대체 기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 일까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스테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악한 손길로부터 스테반의 목숨을 지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스테반의 목숨을, 그 악한 자들의 돌 밑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스테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저들이 잘못 하고 있는 거야, 저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게끔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고,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실 것인데, 그 때 혼자 남게 될 제자들에게 이 16장의 말씀을 왜 해 주시냐 하면, 33절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보내 주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지금 나를 권력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도둑~놈, 핍박당하는 사람은 순~경!'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서 세상을 책망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회초리를 들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세상을 향하여 때리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는 위치에 우리 마음을 세워 주신다는 것은 세상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그 세상이, 얼마나 잘못돼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심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내 마음 속에 평강을 유지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원하세요? 이런 역전을, 이런 인생의 역전을 원하세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1등 하겠다고 달려갑니다.
돈 버는 일에서 1등 하겠다는 경쟁을 달려가고 있고, 오래 사는 경쟁을 하고 있고, 누가 높아지나 하는 경쟁을 하고 있고, 누가 자식을 잘 키우나 하는 경쟁을 하고 있고, 누가 예쁘냐 라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많이 배우느냐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오셔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경쟁에서 1등 하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경쟁에서 1등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떼끼, 기껏

한다는 게 평생 돈 버는 일에 정신을 다 쏟고 살아?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디 있나, 이런 멍청한 일이, 그게 뭐라고 그 돈이 뭐라고 돈 버는 일에 평생을 받치면서, 돈 벌었다고 잘난 줄 알고 있고 말이지, 에이 못난, 이런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을 잡겠다고 경주하는 데서 권력을 딱 잡은 사람에게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나?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나? 그 권력이 뭐라고 권력을 잡겠다고 일평생을 받쳐 가지고, 온갖 권모술수와 그 아사리 판에서,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그 더러운 정치꾼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뒹굴면서 대통령 됐다고 좋아하냐? 이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망이 바울에게 들렸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좋던 것들을 깜짝 놀라 가지고, 어이구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서 돈 놓고, 벼슬 놓고, 가문 뭐 이런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무 것도 갖지 않은 채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왕과 총독,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은, 지금 권력의 경쟁에서 1등한 사람들이고, 돈 버는 경쟁에서 1등한 사람들이고, 부귀영화를 쟁취 하는 경쟁에서 1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1등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 뒤꼭지에다 대고,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얘기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돈이 좋다, 오래 사는 건강이 좋다,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자식들이 형통한 게 좋다, 미모가 빼어나야 사람들이 알아준다, 이러한 가치들로 built up 된 이 세상, 이러한 가치들로 짜여 져서 만들어져 있고 구성되어 있는 이 인간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 돼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인간 세상이여! 뭐가 어쩌고 어째? 뭐가 좋다고? 오복이 좋다고? 이 썩은 놈의 세상이여!'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을 범한 아담의 후손들로서, 자기들이 정한 가치들에 매여서 세상의 사회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경쟁하는 자가 우러러 보이게끔 하는 그런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 근본부터가 잘못 돼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얘기입

니다.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건강만 한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모든 사실이 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맞는 자가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그 근거가 뭡니까?
3절에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알게 해 주시면, 그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돈 벌겠다 아우성 하고, 높아지겠다고 아우성 하고, 좀 더 많이 모으겠다고…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좀 더 큰 교회를 짓겠다고 아우성 치고, 좀 더 많은 사람을 모으겠다고 아우성쳤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천국이 현실이 되어 질 때, 세상을 책망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돌에 맞아 죽는 순간조차도 잘못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 그러냐 하면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순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스테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불경죄라고 돌로 치는데, 스테반은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셔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감싸 안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아는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감싸 안으면서 죽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책망하는 위치에 우리 마음이 서게 하시고, 그 책망하는 위치에 서게 된 이유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 주심으로써, 그 천국을 알게 된

자로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뿌리째 잘못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생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의 영으로서, 천국에 계시던 영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건희 씨를 보시면서, 빌 게이츠를 보시면서, 박 근혜 씨를 보시면서 그들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시고, 그런 나라의 대통령 임금들이 주님을 모른 채 임금이고, 주님을 모른 채 재벌 총수라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잘못돼 있는가 하는 사실을, 내 마음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 깨달음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과 잘못돼 있다고 하는 깨달음이 없고, 부러운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은 게 아니고 성령님을 받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 받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의 세상에 대한 책망이, 내 마음속의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경쟁에서 1등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